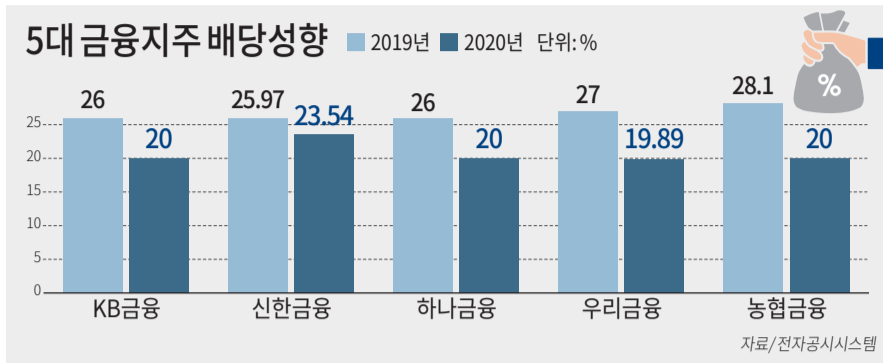


# 20% 배당제한 종료... 금융지주, 중간배당 봇물 터진다

최대 실적에도 배당성향 20%대 금융당국 배당제한, 이달 말 종료 주주환원 위해 중간배당 실시 예정

지난 1월 금융당국이 의결했던 은행권 배당제한 조치가 이달 말 끝난다. 주요 금융지주사는 상반기 부족했던 배당 규모를 채우기 위해 하반기에 중간·분기 배당을 예고하고 있다. 만년 저평가 주였던 은행주가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를 비롯한 국내 금융지주사 8곳과 은행 19 곳은 금융감독원에 오는 11일까지 스트레스테스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스트레스테스트는 발생가능한 극단적인 경제·금융상황에서 금융회사, 기업·가계 등 특정부문 등 잠재적인 취약성을 측정하는 분석방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하고 전 은행권의 배당성향을 이달 말까지 20%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할 것에 대비한 조치였다. 배당성향은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이니 이익이 적다는 의미다.

### ◆최대실적에도 배당금은 20%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들은 지난해 최대 실적에도 권고안에 따라 배당성향을

20%대로 낮췄다. KB금융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조4552억원으로 전년(3조3118억원)대비 4.3% 증가했지만 배당성향을 6%포인트 줄였다.

신한금융도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3조4146억원으로 전년(3조4035억원) 대비 0.3% 증가했지만, 배당성향은 25.97%에서 23.54%로 2%포인트(p) 낮췄다. 지난해 신한금융은 양호한 건전성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해 20%에서 2.7% 웃돈 배당성향을 제공

했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배당성향을 낮췄다.

지주설립이래 최대실적을 기록한 하나금융도 배당을 줄였다. 지난해 하나금융의 당기순이익은 2조6372억원으로 10.2%가량 증가했다. 반면 배당성향은 26%에서 20%로 낮췄다. 우리금융과 농협금융도 배당성향을 7.11~8.1%p씩 줄였다.

### ◆금융지주, 하반기 중간·분기 배당 예고

금융지주사들은 하반기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실적호조로 수익성이 개선된 상태에서 주주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중간·분기 배당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신한금융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고쳤다. 이에 따라 중간배당을 하려면 6월말을 기준으로 45일 이내인 8월 15일까지 이사회를 열어 배당여부를 결정하면 된

다.

신한금융은 분기배당시 작년 주당 배당금을 기준으로 균등 배당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 배당금은 4분기 결산을 마친 뒤 4분기 배당에 덧붙여 지급할 계획이다.

KB금융은 현재 정관상 중간·분기배당이 허용돼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중간배당 시기, 방법은 스트레스테스트 종료 이후 구체화될 것"이라며 "배당성향 축소 이전 수준으로 주주환원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부터 중간배당을 해온 하나금융은 올해도 하반기 중간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금융도 주주총회에서 4조원 규모의 배당가능이익을 확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6월말 감독행정지도가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하반기에 중간배당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모토브, 시리즈B서 총 110억 투자 유치

국내 유일 모빌리티 어반테크 기업 택시업계-정부기관-소상공인 등 상생



모토브 기기가 탑재된 택시. /모토브

모빌리티 어반테크 기업 모토브가 시리즈B 라운드에서 총 11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리즈B 투자에는 알토스벤처스, 티비티(TBT) 등 기존 투자사 외에도 산업은행, ID벤처스, 미래에셋캐피탈, 나우IB 등 신규 투자사가 참여했다. 이로써 지난해 시리즈 A 투자 유치 후 후속 투자 유치에 성공해 누적 투자 유치금 총 226억원을 달성했다. 모토브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 유일의 모빌리티 어반테크 기업으로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모토브는 택시 상단 표시등에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와 30여개의 사물인터

넷(IoT) 센서가 탑재된 스마트 미디어 기기를 설치해 실시간 도시 데이터 수집 및 위치 기반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택시업계 및 정비업계, 정부 기관,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 모델을 구현해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모토브는 올해 초 디지털 옥외광고 플랫폼 사업을 본격화하며 모바일, 금

용, 식음료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광고를 수수하는 데 성공했다.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광고 집행 및 광고 효과 측정이 가능한 차세대 광고 서비스로, 코로나19로 옥외광고 업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거둔 성과다.

또 모토브 기기가 탑재된 택시는 골목 사각지대를 포함한 도심 곳곳을 운행하며 30여개 IoT 센서를 통해 150여종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모토브는 자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인천시와 공동으로 야간 안전 골목길 프로젝트, 건강한 등골길 구축 사업을 통해 AI 기반 어반 데이터 플랫폼으로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 향후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데이터 사업 영역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

(최근 3년간 국내 주요 지주사 배당성향) (단위: %, 십억원)

	삼성물산	SK	LG	LS	한화	롯데	GS	CJ	두산
2018	27.9	19.4	63.6	8.4	21.8	-9.1	42.7	113.3	64.6
2019	61.0	18.9	66.6	78.0	65.4	37.3	64.8	98.2	15.8
2020	118.5	21.6	33.0	32.9	50.9	-23.3	-33.8	128.7	11.0

/NH투자증권

## ‘경기재개 기대감’ 지주사, 새 주도주 바람

지주사 가치가 반등 가능성

지주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후 극단적인 저평가 국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평가다.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리오프닝(경기재개) 기대감도 커지며 부진했던 지주사들이 반등하며 최종적으로 지주사 가치가 반등할 수 있다는 것. 적극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서거나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 휩싸인 지주사들이 새로운 주도주로 주목받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내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앞서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은 신규 지주사가 보유하는 상장회사 지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존 지주회사는 이 법령에서 제외된다. 또한 해가 바뀌기 전에 지주사를 설립하면 일반적인 인적분할-주식교환(현물출자)을 통한 지주사 전환 시 양도차익 금액에 대한 조세특례가 추가 연장 없이 소멸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의 지배구조 개편을 비롯해 F&F, 에코프로, 오스템임플란트 등 인적분할 기업들이 올해 안에 주식교환을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젠 지주사들이 본격적인 상승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국내 지주사는 그 성격이 강할수록 종속회사 성장으로 인한 수혜가 희석돼 기업 가치가 20~30% 할인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여기엔 지주사들의 전환 목적

도 한몫했다. 자회사 관리 측면만 강조되고 성장을 위한 지휘부 역할이 퇴색된 곳들이 많아서다.

전문가들은 현금 흐름과 자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좋은 지주사를 고르는 투자 포인트로 꼽는다. 우량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주주 가치 제고의 지속가능성과 사업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보라는 얘기도.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주사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성장을 위한 '밸류 드라이버' 중심의 가치 창출"이라며 "지주사가 유연성, 역동성, 결단성 등을 가지고 본격적인 구실을 하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와 신성장 동력의 핵심 사업화 등으로 성장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주사로 CJ, 두산, 힐라홀딩스, 현대그린푸드, 한화, 오리온홀딩스 등을 꼽았다.

높은 배당도 주목할 만하다. 대다수 지주사가 실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 중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SK, LG, CJ, 한화 등 주요 9개 지주회사의 연결 배당성향 평균은 43.5%로 집계됐다.

여기에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배당 확대 요구가 지속되는 중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가 도입되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인 요소도 중요한 투자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현재 157개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으며 44개 기관 도입을 앞두고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

## 外人, 지난달 국내 주식 10조 팔았다... 작년 3월 이후 최대

시가총액 외국인 차지 비중 30.1%

(외국인의 상장증권 순투자\* 및 보유현황) (단위: 십억원, 결제기준)

구분	2020년	2021년		4월	5월	보유잔액	
		상반기	하반기				
주식	△24,379	△26,143	1,764	△18,902	672	△10,167	820,162
채권	24,706	22,404	2,302	28,132	3,346	5,516	179,135
합계	327	△3,739	4,066	9,230	4,018	△4,651	999,297

\*상장주식은 장내거래 기준, 상장채권은 장내·장외거래 기준 /금감원

지난달 외국인의 주식순매도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증시가 폭락한 지난해 3월 이후 최대치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0조1670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9조7260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4400억원을 팔아치웠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주가 각각 6조4000억원, 2조6000억원 규모로 순매도에 나섰다. 반면 아시아는 2000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조9000억원, 영국이 2조7000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반면 싱가포르와 캐나다는 각각 7000억원, 3000억원 매수 우위다.

외국인의 국내주식 보유규모는 지난 달 말 기준 820조2000억원이다. 전체 시

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1%다. 미국이 336조4000억원을 보유해 외국인 전체의 41.0%를 차지했고 ▲유럽 255조1000억원(31.1%) ▲아시아 105조3000억원(12.8%) ▲중동 30조3000억원(3.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식시장과 달리 채권시장에서는 투자를 이어갔다. 외국인은 상장채권 10조1890억원을 순매수했고, 4조6730억원을 만기상환해 총 5조516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난달 말 기준 보유잔액은

179조1000억원이다. 올해 1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매월 갱신 중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2조1000억원), 유럽(1조4000억원), 중동(7000억원), 미주(2000억원)에서 순투자했다.

종류별로는 국채(3조6000억원) 및 통안채(9000억원)에서 모두 순투자를 기록했다. 잔존만기별로는 1~5년 미만(4조4000억원), 5년 이상(9000억원) 및 1년 미만(2000억원) 채권에 순투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